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행 4:4)

사도행전은 기독교회역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8),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2:41),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47),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4: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14),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7),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9:31),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24),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의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니라’ (16:5) 등 사도행전은 인간의 능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선포합니다.

1. 중생 그 신비와 말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자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에 참여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충만한 설교는 청중들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중생, 즉 새 사람의 탄생은 인간의 노력과 작품이 아니라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하고 비참한 인간이 거룩한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생 그 신비는 방편을 필요합니다. 그 방편은 바로 말씀(혹은 복음과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없는 중생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일본기독교개혁신학교 신자는 중생을 배우며 그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중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깨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주일 설교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는 않는 듯이 보입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충만한 은혜가 매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지만, 성도들이 깨달지도 누리지도 참여하지도 못하는 일로 저의 심정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한 실마리가 풀리기만 하면 일본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중생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충만한 자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행 6:4). 일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리와 삶

저는 지난 8번의 선교편지를 통해서 일본기독교개혁신학교 50주년선언-「전도의 선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일본교회는 전도를 (전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미약하지만, 일본교회/성도도 전도의 필요성/중요성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합니다. 문제는 성령의 지배, 성령충만에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기독교개혁신학교 신자라면 누구나 칼빈주의의 신학과 교리를 즐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신앙고백 및 대·소교리문답)와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열심히 배웁니다. 전통적인 예전을 지키며 시편가도 부릅니다. 덧붙여서 어떤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도르트 신조도 배웁니다. 문제는 그 배움이 지식에서 그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파 신학과 교리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신학과 교리가 무시를 당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위에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카츠타다이 교회의 주일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2. 이 여름에도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80 세 이상 성도, 19 명)
3. 9 월부터 시작되는 세례와 입교 공부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매주일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소서
4. 주은-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향-교회에서의 사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5.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6.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2022 년 8 월 1 일(금)

일본 카츠타다이(勝田台)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